

화재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옛날 5일장이 성행하던 시대에는 시장화재란 그렇게 흔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유통구조가 개선되면서 근대적인 의미의 시장이 형성, 다양한 품목을 다량으로 구비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집합하여 대규모의 상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시장은 화재가 빈번할 뿐만 아니라 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부산 국제시장, 대구 서문시장, 서울 동대문 시장 및 남대문시장 등 아직도 우리들의 기억에 남아있는 대형 시장화재 사건만도 수없이 많다.

그래서 이번에는 동절기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시장화재를 당하여 큰 피해없이 진화하는 한편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한 길음시장을 찾았다.

• 건물개요

미아리고개 넘어 성북구 길음동 535번지에 소재하는 길음시장

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시장으로 원래 재래식구조의 시장이었다. 그러나 68년도에 일신상사에서 기존건물에 6층 신관을 신축하여 구관을 포함, 총 2천4백44평중 일부를 분양하고 일부 점포를 임대운영하다가 지금은 동경유통과 현우산업(주)로 분리되어 의류잡화등 생활용품을 취급하는 종합시장으로 성북구 상권의 중심지대로써 주민의 편의를 위해 없어서는 안될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 화재발생

1986년 4월2일 새벽4시경 1층 쇼핑센터내 의류점에서 전기화재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 의류등 상품을 태우면서 건물내 목조 천정 및 창고용도의 다락등을 전소시켰다.

화재를 처음 발견한 폭포식당 여주인에 의하면 퀴퀴한 냄새가 나서 나가보니 1층에서 연기가 솟



• 취재 / 이 두 홍 <홍보 2과장>

아 오르는 것을 보고 즉시 길 건너 길음소방과출소에 화재신고를 하여 긴급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2시간 만에 완전히 진화되었다. 이 시장에서는 경보설비등 소방설비의 오동작이 많아 그날도 야간 근무중이던 경비원이 경보소리를 들었으나 혼한 오동작으로 보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어쨌든 건물내에는 가연물이 많이 쌓여 있어 진화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당시는 영업이 끝난 상태로 건물내에는 잔류인원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진화작업을 위한 소방차의 진입도 용이하였다고 한다.

• 손해상황

이 화재로 발화층에 수용된 상품은 물론 내장재가 전소 되었으며 천정 내벽의 균열, 셔터의 소실 및 훼손과 함께 건물 내 외부가 연기의 그늘음에 의해 오손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한다.

당시 회사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시장 경영상태가 매우 어려운 상태였으나 다행히 건물과 부대 시설에 대하여는 본 협회에서 취급하는 신채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보험금액 3억 2천만원, 보험료 2백50만원)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손해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 졌다고 한다.

화재발생 즉시 이 지역 보험계약 담당직원은 시장관계자를 방문, 손해상황을 확인하고 즉시 보

상 절차를 협의함으로써 협회는 한국감정원의 건물신축단가표에 의해 추정되는 적정면적당 단가를 적용, 가액을 일식 평가하여 세부적인 정상복구 수리비용을 감안하여 86년 5월 22일자로 최종피해액 2천 9백 8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 완료, 손해복구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 소방시설 전면보수

일신상사는 본 협회에서의 가도보험금을 수령한 즉시, 우선급한대로 기본시설에 대한 보수작업을 시작했고 8월에 현재의 현우산업과 동경유통에서 인수, 경영주가 바뀌면서 대대적인 보수 또는 증설공사가 시작됐다고 한다.

각 건물 용도별 방화구획을 위시하여 내장재와 간막이 작업을 교체 또는 보완하고 비상조명등 설비 등을 새로 설치했다. 발화층에 대하여는 소화전을 1개소 증설했으며 기존의 모든 전기 배선을 교체하고 소방시설을 전면 보수하는 등 출화방지와 연소확대 방지를 위한 시설보수에 주력했다. 그리고 방화관리자 외에 경비원 2명을 고정배치하여 1시간 간격으로 순찰함을 따라 방화·방법취약지점을 순찰토록하고 있으며 각 입주상인들에게는 방화 의식 고취를 위해 소방관서와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화재예방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1층의 무질서한 노점상들의 좌판 배치형태를 조정하고

유사시 이동이 용이하도록 바퀴를 달아 소방도로 확보에 대비하는 등 새로 인수한 경영주의 화재에 대한 관심이 대단함을 느끼게 했다.

현재 시장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보면 구관에는 경보설비와 옥내소화전설비가, 신관에는 전층에 스프링클러설비, 옥상 주차장내에는 포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다. 요소요소에 초기소화기가 배치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이처럼 화재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건물내 137개분양점포의 경우에는 뚜렷한 운영주체가 없어 시설개선등 총체적인 화재위험을 줄이기 위한 협의 창구의 부재, 재원염출등의 어려움으로 효과적인 방화관리 체제를 기대하기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대부분의 화재가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하는 예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조직적인 방화관리내지는 불조심체몽을 위해서는 확실한 관리주체가 더욱 필요하다.』고 유 용태총무가 전했다.

여기서 우리는 일시적이거나 경영부채상태가 되면 방화관리는 관심밖의 대상이 되어 더욱 큰 재앙을 되돌려 받게 되는 예가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동절기에는 잠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시장의 방화대책. 따라서 한 사람의 부주의로 주위의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시장의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종사자 모두가 방화관리자가 되어야 할 것 같다.

